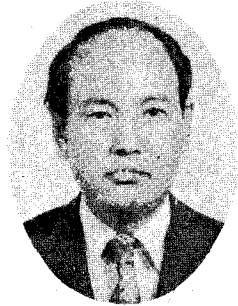


# 配合飼料 수요증가에 따른 단미사료의 자급전망



俞 東 澹  
(한국단미사료협회 전무이사)

사료관리법(飼料管理法)에서 사료라함은 단미사료(單味飼料)와 배합사료(配合飼料)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직은 사료하면 배합사료를 사료라하지 단미사료라 하면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하기가 10여년전엔 배합사료는 물론 사료자체를 일반인은 잘 모르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제 배합사료 생산량이 400여만M/T을 육박하게 되었고 1990년대엔 1,100만M/T을 예상하게 되었으니 사료의 위치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단미사료가 그만큼 필요 하다는데 이의(異意)를 달 사람이 없을것이다.

우리나라는 農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을 숭상해 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위치에 변동이 있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식량은 자급도를 높였으나 사료자원은 거의 도입(導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부존자원개발(國內賦存資源開發) 활용이 어느때 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당국에서도 사료수

급계획(飼料需給計劃)의 기본방향(基本方向)중에 첫번째가 국내부존자원 적극개발로 되어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마디로 배합사료의 구성원료(構成原料)는 모두가 단미사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대별(大別) 한다면 곡류사료(穀類飼料), 동물성단백질사료(動物性蛋白質飼料), 보충사료(補充飼料), 조사료(粗飼料)에 해당하는 모든 사료는 단미사료이다.

자원의 빈곤으로 곡류사료의 대종을 이루는 옥수수(玉蜀黍)는 거의 전량 도입(導入)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맥피(小麥麩)와 대두박(大豆粕)은 원료를 도입하여 밀가루를 만든 과정의 부산물(副産物)과 식용유(食用油)를 만들고난 부산물(副産物)을 이용하고 있으며 광물성사료(礦物性飼料)의 경우 인광석(磷鑛石)을 도입하여 인산칼슘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순수한 국내부존자원을 이용한 사료는 어분(漁粉)과 해조분(海藻粉), 패분(貝粉), 골분(骨粉) 등을 들수 있겠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나라 단미사료는 첫째 순수한 국내부존자원

## 특집

을 이용한 단미사료, 둘째 타용도에 의하여 도입되어 제품생산중 생긴 부산물의 단미사료, 셋째, 단미사료를 제조키 위하여 원료 자체가 도입되는 단미사료로 구분할 수 있다. 77년도까지는 국내 단미사료업체의 생산(生産) 공급(供給)량에 대한 통계(統計)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농수산부에서는 '78년도 1월부터 당시 임의단체(任意團體)인 한국단미사료가공조합(韓國單味飼料加工組合)을 통하여 등록(登録)된 단미사료업체의 생산판매 보고를 집계(集計)토록 조치하였고 이어서 '78년 8월 11일 제 3차 정책회의(第3次 政策會議)에서 단미사료 생산의 문제점과 육성방안을 결정하여주고 국내 단미사료는 업종이 다양(多樣)하고 업체수가 많아 행정력만으로 지도감독 하기엔 지난(至難)하다고 판단하여 임의단체인 한국단미사료가공조합을 법인격(法人格)으로 승격(昇格)토록 결정하여 오늘의 社團法人 韓國單味飼料協會가 '78년 9월 11일 창설(創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79년 1월 중순에 국내초유로 어분(魚粉), 어즙흡착사료(魚汁吸着飼料), 육분(肉粉), 우모분(羽毛粉), 육골분(肉骨粉), 피혁가공분말(皮革加工粉末), 골분(骨粉), 인산칼슘(磷酸칼슘), 해조분(海藻粉)의 월별, 연간 판매실적이 직접 되었다. 앞으로 2~3년간 생산판매집계가 되면 훌륭한 통계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물결이 일고 있음은 어느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다. 얼마전 모방송에서는 어느 개그맨의 입을 통하여 쇠고기 1근에 15,000원이라고 비싼 쇠고기 얘기를 하고 난후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얘기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경우 쇠고기는 그래도 상당히 싸다고 대견해함은 잊지 않고 넘어갔다. 필자가 모잡지에서 본글이 생각난다. 일본의 양축가(養畜家)의 소비자

(消費者) 그리고 해당부처 담당관리 3인의 T.V 대담이 있었는데 대담내용은 소비자는 쇠고기값이 비싸다고 정부(政府)에 건의하고 양축가는 오히려 이익(利益)이 없다더니 했을때 해당부처 관리는 흔쾌히 생산자인 양축가의 편을 들어 당장 싼 쇠고기를 먹기위해 도입한다면 언젠가는 정말 비싼쇠고기를 도입하지않고 못배기게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세계 각국이 모두 싼것을 먹겠다고 도입만 하게 될 경우 수요공급원칙에 의하여 도입품이 현국내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될 장기적(長期的)인 문제점이 있으니 현재는 비싸더라도 국내산 쇠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못을 박아 버리더라. 현해탄을 사이에둔 차이다. 우리도 한번 두고두고 음미해볼 문제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적으로 도입에 의존해야할 단미사료는 어쩔 수 없다.치고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단미사료중 어분(魚粉) 도입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당국(當局)은 물론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입장이 항시 상치 된다. 수요자측인 배합사료업체는 부족량의 예상과 국산어분의 품질 및 가격을 들고 나온다. 상당한 이유라 생각된다. 배합사료 소비증가와 이에 따른 품질향상(品質向上)이 중요하기 때문이리라. 년원(年源)은 배합사료보다 앞섰으면서도 우리나라 경우 배합사료 근대화에 비교하여 단미사료는 우선 영세(靈細)하다보니 근대화가 뒤져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배합사료못지 않게 단미사료업체도 근대화작업에 발버둥치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대에 수천만원 하는 원심분리기(遠心分離機)를 작년에 3대를 도입하였으며 지난 2월중 도입계약이 끝난 원심분리기가 5대며 현재 계약체결중인 것이 3대로 알려졌으며 계속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모르긴 해도 배합사료 자체를 도입하면 품질을 물론 가격도 저렴한 것

이다. 아울러 노동력부족을 얼마간은 해소시킬수도 있다. 예상을 뒤엎고 늘어나는 배합사료 물량을 도입이란 창구로 대치한다면 간단한 해결방법이 될것이다. 수입자유화에 편승만 한다면 이는 그렇게 역설적(逆設的)이 아닐 수도 있다. 다소 가격이 비싸고 품질면에 뒤떨어져도 단미사료의 업계라는 나무보다 농어민 소득증대란 수풀을 볼줄도 알아야겠다. 나무만 보고 수풀을 못보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관계당국(關係當局)도 농어민소득증대란 수풀을 보기 때문에 국내부족자원적극개발을 계속적(繼續的)으로 역설 하리라 믿는다. 오늘날 배합사료업계를 대기업 단계에 올려 놓은것은 양축가의 공이다. 이제부터 배합사료업계는 단미사료업계의 근대화를 향한 육성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어야겠다. 현재 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 집계중에 있는 등록된 단미사료 품목별 자급전망(自給展望)을 대략적으로 열거하여 본다면 첫째 어분(魚粉)의 경우 고단백(高蛋白)의 중요한 원료로 각광을 받고있는 정어리가 지난 '77년도부터 어군(魚群)을 형성하여 '78년 경우 20,000M/T의 도입 예정량을 예상한것이 6,100M/T도입으로 부족량 없이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 측에서도 3,000M/T과 8,000M/T의 재고(在庫)를 갖고 '79년을 맞이했다. 정어리 어장이 한번 형성되면 30년에서 장기 50년을 간다고 한다. '78년도에 이북과 일본으로간 정어리 숫자는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어분공장 경우 단위 생산량의 배가증설을 맞추었거나 서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이며 '79년 3월 현재 4개공장이 신설 되었으며 현재 신설중인 공장이 10여개에 이르고 있어 금년중 약65개 공장이 가동(稼動) 예상으로 약 150,000M/T공급이 가능한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인산(磷酸) 칼슘의 경우 현재

의 시설능력이 '80년대 배합사료 생산량에 해당되고 있어 현재 잉여시설을 수출에 돌리고 있는 형편으로 오히려 과잉생산 상태다. 셋째 육골분(肉骨粉), 육분(肉粉), 우모분(羽毛粉), 피혁가공분말(皮革加工粉末)의 동물성 단백질사료(動物性蛋白質飼料)에 있어 일부 업체들의 시설개선(施設改善)과 원료의 유통체제 확립이 된다면 육골분이 7,000M/T, 육분이 6,000M/T, 우모분이 5,000M/T, 피혁가공분말이 15,000M/T은 무난할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골분의 경우 가격관계로 사료가 아닌 비료(肥料)(인삼밭에 사용)나 타용도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은 애석한 일이다. 다섯째 해조분의 경우 국내판매 가격의 문제로 등록된 해조분 제조업체는 거의 전량을 일본(日本) 등지로 수출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빨리 국내사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78년을 기점으로 관계 당국의 단미사료 육성책에 힘입어 한참 발돋움중에 금년 1월부터 발효된 환경보존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단미사료 공장이 환경보존법에 저촉되고 있어 어려운 살림에 공해방지(公害防止) 시설에 상당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차체에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겠다. 공동단지를 조성하여 공해방지시설의투자비율(公害防止施設의 投資比率)을 절감하고양산체제(量産体制)를 모색(模索)하여야 한다. 한국단미사료협회 창설당시 공해문제를 예견코 공동단지 조성및 공동사업장 설치를 주장해 왔다.

늘어나는 배합사료 물량에 비하여 안일한 낙관은 불허하지만 일부에서 생각하듯 절대로 현재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들의 수급전망이 비관적이 아님을 밝혀둔다 배합사료업계및 양축가들의 지속(持續)적인 육성지원(育成支援)을 부탁드린다.